

아파트에 먹거리 등 호텔급 서비스… “로컬 상인과 시너지”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프런트9 박문근 대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원하는 식사, 여행, 쇼핑 등을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를 아파트에 접목해 공동주택을 위한 종합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이가 있다.

신선식품, 홈케이팅, 모빌리티, 헬스케어, 인테리어, 팻케어 등 아파트·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9가지 서비스를 고객의 집 앞까지, 필요한 시간에 제공하겠다고 나선 ‘프런트9’(FRONT9) 박문근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 강동에 있는 FRONT9 사무실에서 만난 박문근 대표는 “우리나라에 선 월 500만원 이상을 벼는 고소득자의 75% 가량이 아파트에 산다. 특히 신축이나 재건축 등을 통해 7~8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입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런트9의 사업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런트9이 ‘아홉가지 서비스’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한식조식, 반찬, 밀키트, 샌드위치, 샐러드 등 프레시푸드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일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입주민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아파트 조식서비스에 일반음식점이나 케이터링 서비스

컨시어지 접목 구독경제 플랫폼 식품·모빌리티·팻케어 등 9가지 서울·경기 대단지 아파트 타깃 반찬가게 인수해 먹거리 배송朴 “꼭 필요한 서비스, 집까지”

는 제약이 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겐 기회가 되고 있다.”

프런트9의 프레시푸드 구독서비스는 입주민이 이틀전까지 배송 희망 상품 주문·정기 구독 신청→주문 실시간 접수 및 당일 생산량 확인(하루전)→반찬가게 등 공급사에 전달→당일 새벽 제조 및 배달기사 통해 고객에 배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주문과 결제 등은 프런트9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협약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박 대표는 “현재 대표적인 것이 반찬 배달 서비스다. 많은 유통기업들이 새벽 배송을 하는 추세인데 우리도 반찬 등을 새벽 배송하고 있다. 신선한 식품을 직접 만들어 직접 배송하면 보관 창고가 필요 없다. 물류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에 주문받은 양을 만들기 때문에 버리는 음식도 없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박 대표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반찬가게 ‘매일식품관’을 옮해 초 인수했다. 지난 6월엔 송파구에서 27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한 ‘몽촌반찬’도 인수했다.

퓨전 음식이 많은 매일식품관은 가지 수만 80~100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몽촌반찬은 250여 가지가 있



프런트9 박문근 대표가 서울 대치동에 있는 매일식품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런트9

다. 매일식품관은 현재 롯데백화점 동탄점, 미아점, 평촌점 외에 경기 광교 갤러리아 등에도 입점해 있다.

프런트9의 타깃은 아파트다. 특히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과 경기 과천, 용인에 있는 주로 1000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공략 대상이다. 첫 고객은 서울 송파에 있는 1137가구의 위례호반 베르디움이었다.

박 대표는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 선 대형 아파트가 좋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의 8개 아파트, 1만3000가구를 고객군으로 확보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20개 단지, 2만 6000가구 가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프런트9이 자체 새벽 배송망을 통해

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상생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프런트9은 지난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즉 ‘팁스(TIPS)’의 스포츠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프런트9은 팀스에 선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건강 식단 매칭 플랫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다 한국의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창업해 대기업 전자 회사·통신회사 협력업체를 했다. 한때 유행하던 ‘V컬러링’과 통신사 부가 서비스 중 일부가 박 대표의 작품이다.

“세번째 창업한 회사가 배달대행 플랫폼이었다. 배달형 공유주방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가 나오면서 배달시장이 격변해 F&B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프런트9은 4번째 창업 한 회사다. 플랫폼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만 오프라인 기반 없이는 관련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닭았다. 프런트9이 9가지의 사업 장착을 목표로 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이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타깃으로 하면서도 로컬 상인들과 공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변 분들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업 ‘사회적 가치’, 금액으로 환산한다

중기부, 자가측정 서비스 구축 측정관리 프레임워크 IMP 방법론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일부터 운영한다.

지난달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연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방법론을 적용했다. 7개 중점 사회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IMP 방법론은 세계적으로 사회성과 측정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임팩트 측정 관리 프레임워크다. 7개 중점 사회 영역은 ▲취약계층 소득증대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교육·훈련 접근성 개선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장애인 보조제품·서비스 접근성

개선 ▲대기·수질오염 저감 ▲재생에너지 확장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자동 측정, 보고서 생성, 공시, 검증이 있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임팩트 보고서는 기본 정보,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리스크와 추가 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기업 선정

귀뚜라미가 ‘2022 콜센터 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지난달 31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콜센터 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가 국내 59개 업종, 244개 기업 및 기관의 콜센터 상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 평가 지수 모델이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본원적 서비스 ▲부가적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

적극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등 7개 구성요소, 39개 세부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용 보일러 부문 2년 연속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기업’에 뽑혔다.

귀뚜라미는 최고 수준의 고객만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혁신을 거듭하는 한편 건강한 상담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충청 中企 베트남 수출길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성료

충청지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길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2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지난달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전·충남·세종·충청권 3개 지자체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대전 10개사, 충남 20개사, 세종

3개사가 정수밸브,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산업재부터 화장품, 흥삼 등의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에선 이들 충청권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419건의 상담이 진행돼 약 9974만 달러 규모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41건의 업무 협약 등 2984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가 독립된 스프링과 7존 고밀도 프로파일 풀을 조합한 탑퍼분리형 매트리스 ‘マイドリーム(사진)’을 출시 했다.

지난달 3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매트리스 ‘マイドリーム’은 통기성 및 신체 압력 분산이 우수한 ‘9존 고밀도 프로파일 풀’을 적용해 자는 내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이드리ーム은 체형

에 맞춰 9구역(zone)으로 품의 밀도를 다르게 구성해 신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전신을 섬세하게 지지해준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사망자 154명 전원 신원확인… 내국인 40대 여성 1명 추가
▲ 학생·교사도 9명 이태원 참사… “안전교육 더 개선할 것”

/사진 뉴시스

▲ “6명이 뒤에서 밀었다”… ‘과실치사죄’ 적용될까
▲ ‘여론조사 조작 혐의’… 전·현직 장수 군수 가족·측근 37명 검찰 송치



▲ 경찰, 이태원 참사 목격자 44명 조사 · CCTV 52건 확보
▲ 8월 실질임금 340만8000원… 5개 월연속 ‘마이너스 행진’

/사진 뉴시스